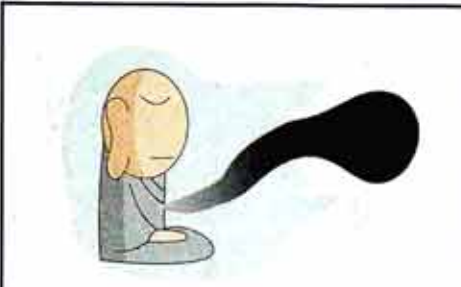


한국전력공사 공인협력업체
한국전기연구소 품질인증업체
심야전력 기가제조 설치전문
▶용도: 사찰, 주택, 식당, 병원, 목욕탕, 숙박업소, 공공시설, 모든 공공장소에 설치
그랑/솔/레/이 051)743-3376

현대불교

'98 지방강장제 부문 고객만족도 1위
원비디

회장 노대행/발행인 김 편집인 김경삼/논설고문 고은/편집국장 최정희/인쇄인 김규식/등록번호: 다-3379/©110-170 서울시 중로구 건지동 110-33/대표전화 737-8881/편집국 722-4162 FAX 737-0698/광고국 737-0692/구독신청 737-8881
구독료: 월 4천원 1년 4만원
발기 2543년(서기 1999년) 4월 21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현대화·세계화 제 219호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한국불교 이것부터 고칩시다

실종된 자자와 포살

동안거의 마지막 날 안거종 자신이 범한 죄과를 대중에게 고백하고 참회하는 것을 자자(自恣)라 한다. 또 동일지역 내의 스님들이 보름마다 모여서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죄가 있으면 고백 참회하는 의식을 포살(市薩)이라 한다.

불자로서 계율을 지키고자 서약하는 수계법회는 전국 사찰에서 수없이 열리고 있으나, 반성과 참회를 하는 포살법회는 수계법회만큼 활성화 되지 않고 있다. 불자들에게 계율을 지키는 일이 생활화되지 않았다는 증거다. 수계법은 이후의 신명 생활에 대한 꾸준한 관리가 미흡해 수계는 말도 지게는 드문현상이다.

조계종 총무원에서는 96년 2월부터 98년 8월까지 2년6개월동안 매일 포살법회를 실시해 왔다. 이 법회에는 직할교구 소속 사찰 주지스님과 중앙

종무기에서 소임을 맡은 스님들이 참여했다.

처음엔 50명 이상이 참석해 '새로운 총무원'의 모습을 보이다가 차츰 참가하는 스님들이 줄어들었다. 급기야 포살법회는 자리를 잡지 못했다.

"새 총무원체제가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아 포교·교육과 관련된 각종 제도를 정비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 총무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누가봐도 실책이 없다.

스님들이 재가불자들 살아가면서 부처님전에 반성하고 참회할 일들은 수없이 많다. 매일 자신의 행동과 언행을 살피는 참회와포살은 보다 건강한 삶의 기본조건이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중앙종무기에서 일정한 지계를 점검하는 법회 시스템은 반드시 갖춰져야 한다.

조계종 뿐만 아니라 여타 종단도 예외일 수는 없다. 현재 각 종단 총무기에서 포살법회를 정기적으로 병행하는 곳은 없다. 어느 종단이든지 모든 불자들의 의무인 수계와 지계를 생활화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미래사회를 이끌어 가는 불교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없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김주일 기자(jkim@buddhapia.com)

알림 교계뉴스 매일 속보제공
인터넷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조계종 곧 대사면

부처님오신날...멸빈자·정화회의 관련자 제외

조계종이 5월 부처님오신날을 기해 사면을 실시한다. 총무원장 고산스님은 14일 종회의장단 및 본과위원장, 호계위원, 포교위원장, 교육위원장, 대중특위 위원장, 집행부 부·실장 등 30여명을 초청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전 총무원장(원주, 의현) 시절 제작 또는 공권정지의 징계를 받은 스님들을 초과할을 기해 종정스님에게서 사면하도록 청하겠다"고 밝혔다.

고산스님은 청석자들에게 "본인의 무차화합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으며, 청석자들은 대체로 사면

실사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사면에서 멸빈자와 정화회의의 관련 징계자는 제외된다.

간담회에서는 또 초과일 전 사면을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늦어도 5월 중순 임시총회를 열어 사면동의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관련기사 3면)

간담회 직후 총무부장 원택스님은 "이날 간담회에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원장스님은 멸빈자도 구제하겠다는 마음이다. 정화회의의 관계자에 대해서도 적당한 시기에 사면을 실시할 의향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사면대상자는 55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의 정도(경감 또는 소멸)와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추후 집행부에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의 초과일 전 사면 실시는 고산스님이 강조해온 '무차화합'을 실현하기 위한 첫 번째 가시적인 조치이다. 지난 해 총단사태 관련자들은 이번 사면에서 제외됐지만, 사면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성은 기자
(swjung@buddhapia.com)

5월1일 경주서 불교예술대전

종단협주회...6월5일까지 불교문화 홍보 불교역사전·의식 사진전·영상관 등 준비

한국불교예술대전이 5월1일부터 6월5일까지 36일간 경주 엑스포 행사장에서 열린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주최하고 문화관광부와 각 정당불자들이 후원하는 이 행사는 1천6백년 불교예술 문화를 집대성하는 축제의 자리를 통해 새 천년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된다.

행사의 주된 내용은 이루어진 전시장은 5코너로 설치된다. △주제관은 예불 등 불교의학을

연할 수 있는 법당과 한국불교 역사전, 사진전, 영상관으로 꾸며진다. △예술관은 불교미술 전시관과 유물관, 건축관으로 설치된다. △음용관에서는 예불음용을 비롯 일반 생활음용품을 전시관한다. △채취관은 인간문화재관과 무술관으로 나뉘어 불교예술과 무술도 한 수씩 배울 수 있다. △정통사찰 음악관은 현대인들의 건강식으로 각광받고 있는 사찰음식을 맛보고 조

리법도 배울 수 있는 공간이다. 경주 엑스포 행사장을 사방으로 나뉘어 꾸며지는 자비의 광장과 중도, 진리, 나눔의 광장에 서도 독특한 행사가 연일 이어진다. 10만명당결기, 불교사진무대, 민속놀이 마당, 이야기 불교여행 등 기획행사도 진행된다. 임연태 기자
(yfilm@buddhapia.com)



예비스님들 장기기증

1백19명이 장기기증, 1백19명이 화상유언을 서약했다. (관련기사 23면)

"참회와 성찰로써 깨끗이 길고 닳아 청정함을 이룰 그날까지 부처님의 계법과 살아있는 수행정신으로 정진 또 정진 하였습니다." 15일 직지사서에서 열린 조계종 제16기 행차교육원 화상식에서 예비스님들을 계사로 시미·시미니계를 수지한 264명은 '부처 이후기'를 다짐했다. 이날 화상식 후 계를 수지한 시미·시미니 1백19명이 장기기증, 1백19명이 화상유언을 서약했다. (관련기사 23면)

도난성보 사진신고

조계종, 5월9일까지

조계종총무원 문화부(부장 양신)는 도난당한 성보문화재 실태조사를 위해 '도난성보문화재 사진신고 기간'을 마련했다.

신고대상은 85년 이후 도난당한 성보이며, 기간은 5월9일까지. (02)725-1674 또는 도난당한 성보문화재를 회수할 수 있도록 문화재관리국 등과 긴밀히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조계종, '조태 분규 특위' 구성

총무원장 직속기구로...상시 대화창구 운영

조계종총무원(원장 고산)이 '조태-태고종 분규해결 특별추진위원회'를 총무원장 직속기구로 구성했다.

총무원은 3월 24일 종무원회의에서 조태특위를 구성기로 하고, 총회부의장 청화, 총회법제분과위원장 경후, 총회사무처장 영태, 총무원 총무부장 원택, 재무부장 알현스님등 5인을 위원으로 선정했다.

총무부장 원택스님은 "당장 조계종의 방안을 태고종에 제안하기보다는 연구사찰을 둘러싸고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며 상시적인 대화창구 개설이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원택스님은 또 "부처님오신날 이후 태고종과 본격적인 접촉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성은 기자

종지봉대 '공감'...명칭 '이견'

조계종-선학원 연석회의

조계종 법안대책특위(위원장 영담)와 선학원 종단현안실무위원회(위원장 성문)는 13일 조계종 총회사무처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양측간의 관계정립을 논의했다.

조계종측은 이날 회의에서 현재의 명칭에 '대한불교조계종'을 삽입해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선학원'으로 하고, 목적조항에 조계종의 종지 공동체를 봉대한다는 내용을 포함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선학원측은 명칭 변경은 대다수 본원장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조계종 종지 공동체는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조계종에서 법안대책위 위원장 영담스님과 총회부의장 지용, 윤광, 범성스님, 선학원측에서는 종단현안실무대책위원장 성문스님과 윤성, 오철, 성우스님 등 4명씩 참석했다. 다음 회의는 선학원측이 입장을 잡아 조계종에 알려주기로 했다. 정성은 기자

구산선문 참선 기행

4월: 가지산문(보림사)-운주사·쌍봉사



사의 위치 등 상당수의 저서와 논문을 남겼다.

특히 운제스님은 조선시대 건국대 교수시절 불교학행회를 지도하고 지성인 불자들을 양성, 불교인재봉사에 큰 공로를 세웠다. 서울시 교육감, 뇌하학술상, 대한교련상, 국민훈장 목련장 등을 수상한 바 있다. 18일 영결 다비식을 가졌다. (자주상보) 한명우 기자

본사는 4월부터 12월까지 한국불교의 선맥을 따라 '구산선문 참선기행'을 떠납니다. 4월 첫 기행은 가지산문의 중심도량인 보림사와 외불로 유명한 운주사, 국보 칠광선사부도암이 있는 쌍봉사를 참배합니다. 구산선문에 대한 이해는 독자 여러분의 수행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출발: 4월 24일(토) 밤10시·조계사 앞
- 안내: 황호균(전남대 박물관 학예연구원)
- 회비: 4만5천원(조식 중식 포함)
-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22-4162-3
- 입금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예금주 선정호)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후원: 한국불교연구원 협찬: 일양약품·대한불교제과인회

연등의 미학 장엄 팔각등

장엄 팔각등은 전통적 미와 현대적 감각을 함께 갖춘 산뜻한 색상과 편리한 사용, 견고함을 자랑하는 연등입니다.

● 연등이 변하고 있습니다. ●

장엄팔각등은 각종 행사의 분위기를 한껏 살려주며 행사기간 내내 사찰과 그 주변을 밝게 비추고 있을 것입니다.

- 물리적인 힘이 켜지거나 장대부 속에서도 결코 쨌지않고 본래의 모양을 유지합니다. ● 장엄 팔각등은 기존의 팔각등과는 달리 사용후 접은 상태에서 간편하게 보관이 되도록 운반, 보관이 간편합니다.
- 밝고 다양한 색디자인과 단정문양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불 도량의 정엄함을 느끼게 해 줍니다.
- 선명한 색상 오색으로 이어진 야간 점등 후 모습은 한국전통등으로써 화려함을 자랑합니다.
- 현대적 감각의 디자인이 어우러진 장엄 팔각등은 선명하고 밝은 색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 기존 팔각등에서 볼 수 없는 특징으로 장기간 사용후 물세척으로 새 것처럼 깨끗이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 주문전화 : 02)732-1522/737-8881(대표)
- 주문팩스 : 02)737-0697
- 판매처 : 불·부다피아
- 납품방법 : 신청하신 곳으로 직배·택배 발송

※ 촛대, 등껍지, 이음표 포함

첩등

장엄팔각등은 펼칠과 조립을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 한번의 동작으로 펴서 사용하고, 접어서 보관하는 팔각등입니다.

■ 팔상성도 (八相成道)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생부터 열반까지의 이덟가지 중요한 중생제도를 위한 모습

- ①도솔계의상 도솔원에서 내려오는 모습
- ②비림강성상 물바다물안에서 탄생하는 모습
- ③사문유관상 사방의 문으로 나가서 중생들의 고통을 관찰하는 모습
- ④유신출가상 성을 넘어 출가하는 모습
- ⑤심신수도상 설산에서 수도하는 모습
- ⑥수위영양상 보리수 아래에서 마구들을 항복시키는 모습
- ⑦죽림진법상 녹야원에서 최초로 불법을 선포하는 모습
- ⑧영림열반상 사리랑수 아래에서 마지막 설법을 아뢰시고 열반에 드시는 모습

조립등

조립등은 반으로 접은 상태에서 보관되며 사용시 펴서 풍에 맞추어 밝는 간단한 방식으로 뛰어난 색감을 자랑합니다.

● 봉축 장엄팔각등

● 만다라 장엄 팔각등

● 규격 : 표준 11cm ● 가격 : 2,200원

● 규격 : 표준 11cm ● 가격 : 1,840원